

# 『健全한 病院育成 保護策이 마련되었으면...』

지난해는 國內外的으로 너무나 衝擊的인 事件들이 많았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 病院界 로서도 多事多難했던 試鍊의 한 해였던 것으로 記憶된다.

例年에 比하여 醫療保險酬價가 政府当局의 低物價施策에 묶여 가장 低率(4%)로 그나마 가장 뒤늦게(83. 10. 1) 調整되므로써 病院經營은 더욱 惡化될 수 밖에 없었고 韓國自動車保險會社側이 一方的으로 病院의 診療費를 割引하려는 움직임에 對한 對策과 自動車保險 多元化施策에 따라 10個 損保會社가 參與하는데 있어서 會員病院의 契約對策, 서울大病院의 手術後遺症에 對한 서울高等法院에서의 蓋然性 理論에 立脚한 判決로 因하여 全醫療界가 들쭉했던 波紋과 醫療紛爭을 預防하기 爲한 努力, 病院들이 國民醫療向上을 爲해 不撤晝夜 奉仕하고 寄與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相應한 社會的인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의 信賴을 回復하고 새로운 病院像을 定立하기 爲한 全國病院 親切奉仕競演大會와 垂範事例 發掘等 病院界의 自律淨化活動, 그리고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장 어려웠고 말씀이 많았던 病院標準化 및 修練病院 實態調査와 專攻醫 定員策定等 크고 작은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會員病院의 權益保護와 育成發展을 爲해 하루도 寧日이 없었던 한 해였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 衝擊波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事件은 I病院, K病院, D病院 등 소위 中小規模病院들의 잇다른 倒産이다.

더우기 이와같은 倒産病院들이 모두 大都市에 位置하여 比較的 歷史도 길고 經營技法도 앞서 있었던 病院들이었기 때문에 餘他病院들 마저 이 不幸스런 事態가 언제 내 病院, 우리 病院에 닥쳐 올지 모른다는 不安과 緊張 속에 戰戰兢兢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病院界가 이와같은 不幸한 事態가 到來할 것을 豫見하면서 政府当局에 醫療機關 들의 育成保護를 爲한 政策的인 支援과 配慮를 數 三次 간절히 呼訴하여 왔던 理由도 바로 이런데 있었지 않았는가 본다.

醫療原價를 補償하지 못할 만큼 低廉하고 非現實的으로 策定된 醫療保險酬價로 因해 病院經營이 惡化되므로써 醫療의 質이 低下될 憂慮가 있고 醫療保險惠澤을 받지 못하는 一般患者의 大部分이 보다 어려운 階層에 屬해 있음에도 不拘하고 診療費는 그들보다도 더 많이 負擔해야만 되는 등 副作用이 많기 때문에 適正水準으로 引上調整해 줄 것을 비롯하여 政府当局이나 言論에서 흔히 醫療의 社會公益性을 主張하면서도 實際로는 病院들이 社會公益機關에 相應하는 惠澤을 全혀 받지 못하고 있는 各種稅制, 公課金 및 金融上의 不合理性을 是正하고, 分明히 專門醫가 量産되어 數字上으로는 남아 돈다고 하지만 막상 專門醫를 必要로 하는 病院級以上の 醫療機關 특히 그 가운데서도 小都市나 隔地에 位置한 病院들은 專門醫 確保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制度的인 矛盾을 改善해 줄 것 등이 바로 우리 病院界의 哀切한 呼訴요 主張이었다.

---

大韓病院協會  
會長 趙雲海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政府当局에서는 이에 對한 是正協調가 未洽하였음을 솔직히 指摘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 時点에서나마 國家醫療 百年大計의 大局的인 見地에서 醫療機關에 對한 養成 保護策이 施行되지 못하면 보다 더 深刻하고 不幸스런 事態가 올 것이 憂慮되고 있다.

그것은 한 國家의 行政力에 依해 醫療機關의 自律性에 制動이 加해지고 醫療에 對한 統制가 強化되면 될수록 그 나라 醫療機關이 健全하게 發展해 나가느냐? 못 하느냐? 하는 責任이 바로 醫療機關 自体보다도 오히려 政府当局에 더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해에 바라는 우리 病院界의 간절한 所望은 다시는 病院倒産이라는 不幸한 事態가 없고 모든 醫療機關들이 보다 正常的으로 健全하게 經營合理化를 期할 수 있도록 醫療保險酬価를 早期에 現實化함은 勿論, 病院의 各種稅制, 公課金 및 金融面에서 醫療의 公益性이 必히 反映되어야 하겠으며 病院의 專門人力 確保가 보다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制度的인 保障策이 꼭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편 새해에는 우리 會員病院들이 풀어야 할 宿題도 적지 않다고 본다.

病院의 第一義的 存在意義는 患者診療에 있기 때문에 患者第一主義의 哲學이 우리 모든 病院人의 確固한 信念으로 定着되어 國民의 信賴에 尊敬의 對象이 되도록 努力하는 일이 急先務가 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지난 1981年 4月 本會 第22次 定期總會에서 滿場一致로 採擇된 바 있는 “病院倫理綱領”이 하나하나 實踐되어 나가도록 生活化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소위 病院界의 自律淨化도 저절로 이루어 진다.

이제는 病院이 提供하는 醫療의 質을 傷病의 診療結果만 가지고 判斷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快適한 環境 속에서 올 바른 서-비스를 받았느냐의 與否로 判가름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로는 病院長으로부터 末端의 清掃婦에 이르기 까지 그 病院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들의 患者를 爲한 奉仕와 努力의 總和가 바로 醫療의 質로 評價된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病院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들의 協同의 努力을 보다 效率的으로 極大化시켜 나갈 것인가? 분명히 우리 病院界의 중요한 宿題가 아니 수 없다.

다음에는 우리 醫療界의 團結이다. 全体 醫療界의 團結이 어렵다면 最小限 病院界만이라도 한번 멋있게 뭉쳐 보았으면 하는 所望은 筆者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많은 病院人들이 病院界의 團結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막상 必要한 段階에서는 小我에 빠져 行動統一을 못 한다. 그러나 그 小我가 窮極的으로는 大我를 擇했을 때 보다 못한 結果를 到來하게 된다는 事實을 이제는 깨달아야 하겠다.

波瀾과 激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良心과 正義의 편에 서서 똘똘 뭉치는 것이니 全國 會員病院의 一致團結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이다.

---